



회사에서 출품하고있는 피아노들의 일부 Some of the pianos from the company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의 광복거리에 자리잡은 평양 피아노함영회사는 주체77(1988)년 2월 일본 유한회사 빠졌와 합영 기업을 창설한 때로부터 여러가지 상표들을 가진 피아노를 전문제작 하고있는 럭사가 오랜 생산기지이다.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높은 기술을 가지고 질종은 목재들을 골라쓰며 피아노선, 솜털마치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재료들을 들여다 피아노를 제작하고있다.

이곳에서 생산한 피아노들은 맑고 풍부한 음량, 감수성있는 손감각, 안정된 소리높이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한 악기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20여개 나라들에 판매되고있다. 높은 기술력량으로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는 평양피아노학역회사는

다양한 교류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있다.

Pyongyang Piano J.V. Company, situated in Kwangbok Street, Pyongyang, the capita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February Juche 77 (1988) as a joint venture with Japanese PACO Co., Ltd. It has so far manufactured pianos of various brands.

With rich experience and high level of technique the company uses wood of fine quality and procures materials with worldwide reputation for strings and felt-covered hammers.

Its pianos are highly appreciated for clear sound and rich volume, delicate touch and stable pitch at the musical instrument exhibitions held in many countries. They are exported to more than 20 countries in Asia and Europe.

It is turning out pianos relying on competent technical personnel, and also promoting various exchanges with foreign counterparts.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외국문출판사 주체106(2017)년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DPRK Juche 106(2017)

평양되아노합영회사 Pyongyang Piano
J.V. Company









